

# 2026년 군산내흥초등학교 신축 이전

### 전북교육청,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부지로 이전 추진... 학생·학부모·교직원 88.4% 이전 찬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 내 학교부지로 군산내흥초등학교를 신축·이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 신역세권 택지개발지구로 유입하는 학생 배치를 위해 초등학교용지로부터 1.2km 떨어진 인근 군산내흥초등학교를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2026년 3월 예정으로 신축·이전한다.

이에 도교육청과 군산교육지원청은

군산 신역세권 6,900세대의 주택개발로 유입하는 초등학교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역세권 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군산내흥초등학교를 이전 대상학교로 선정, 학교 이전을 추진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군산내흥초등학교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전 제안 설명회를 갖고, 3월 15~17일까지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88.4%가 학교 이전에

찬성하면서 군산내흥초등학교를 이전 대상학교로 최종 선정했다.

한편 군산내흥초등학교는 1974년 개교해 2022년 3월 2일 기준 5학년(45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학교로, 2020년 3월 총 43학급(일반학급 42학급, 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이전 개교하면 학교명, 학교의 역사, 동창회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군산내흥초등학교 신축·이전은 오는 5월 교육청 자체투자심사와 7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

며, 군산내흥초등학교 이전 부지는 학교스포츠클럽 전용아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교실 면적이 협소한 군산내흥초가 신축·이전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넓고 쾌적한 현대식 교육환경이 제공돼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이다"며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받아 학교가 2026년 3월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교육청, 위기학생 대응 학교장 역량 높인다

### 초·중·고·특수학교 교장·교감 역량 강화 연수... 11일부터 8차례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위기학생 및 학생생활교육 지원을 위한 '2022년 초·중·고·특수학교 교장(감) 전문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자살 시도 및 자해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 극복 능력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특히 학교생활교육에 대한 관리자들

의 이해도를 높여 위기 학생 지원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연수는 이날부터 총 4일 간 오전·오후로 나눠 8차례에 걸쳐 도교육청 창조나래(발관) 시청각자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학생생활교육의 이해와 위기학생 지원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이해와 치료 연계다.

먼저 학생생활교육의 이해와 위기학

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교육 강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학교폭력 시안처리 담당자 지원, 학교장의 책무 이행 확인 등에 대해 안내한다.

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교육, 학생 상담 치료비 지원, 병원형 위센터 운영 등 도교육청이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전문가 강의도 마련된다. 권선중(한국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이해 및 치료 연계라는 주제를 통해 마음의 문제를 이해하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관리자들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 적극 대응한다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과 안정적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의 주인공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송양호 교수, 총장 출마 선언

### "대학혁신본부 설치에 담대한 변화 주도해 나갈 것"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양호 교수가 제19대 전북대 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송 교수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화를 즐기고 꿈을 이루는 창의융복합 미래인재 양성, ▲학생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한 1인당 교육비 연 2,400만원, ▲연구자 개인중심 맞춤형 스마트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연구자 역량 기반 산학협력 가치창출 플랫폼 구축, ▲연 8,000억 원 대학재정 확대 및 4년 1,000억 원 발전기금 확보, 소통과 공감 행정을 통한 열린 거버넌스, 감성복지 실현, ▲지역과 함께 하는 혁신 공유클러스 조성(익산, 군산, 정읍, 고창, 완주 등) 등 7대 약속을 제시했다.

를 설치해 학생교육부터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전환 등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수도권 집중화, 우수인재 확보의 어려움 등의 대학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기초학력 강화와 인문사회 기반 융복합 교육, 학생중심 개인화 교육,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융복합 교육, 전생애 평생교육, 전북권역 교양허브 중심대학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교무처를 교무혁신처로 개편해 해내 역량을 집중시키고, 현재 구축된 빅데이터 기반 교육성과관리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 해 구성원 모두가 예측 가능한 대학 운영 정책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송 교수는 "절대 이러한 추진의 기반에는 소통과 공감을 통한 안정적 대학재정확대와 합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간의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협력의 혁신동력을 이끌고, 안정적 재정확보와 합리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대 총장후보자추천 선거는 오는 10월경 실시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도 음악의 미래인재를 찾습니다'

### 전북음악아카데미, 신입생 50명 선발...전액 무료 사회통합전형으로 50%... 5~12월 까지 전북대서 주말 교육

전북음악아카데미(센터장 백희영)는 음악에 재능 있는 2022학년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전북대가 운영하는 음악영재 교육프로그램으로, 음악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 잠재력을 개발하고 차별화 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3월 설립됐다. 그동안 인재육성의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전라북도 음악 우수인재 교육사업으로 선정됐다.

전북음악아카데미는 도내 초등학교 2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성악, 관현악, 작곡 분야에 총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통합전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와 교육기회균등대상자 학생을 모집인원의 50%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경제적 이유로 음악적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입생 선발을 위한 선발요강 발

표는 4월 6일~5월 6일, 지원서 접수는 4월 29일~5월 6일 오후 4시 까지 전북음악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www.jbmusic-academy.com)서 응시원서 양식다운로드후 전북음악아카데미 이메일(musicgifted@jbu.ac.kr)로 접수하면 된다. 실기시험 및 심층면접은 5월 14일 실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음악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www.jbmusic-academy.com)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전화 063-219-5228로 하면 된다.

한편 선발된 학생들은 도교육청



의 지원으로 전액 무료로 수업을 받는다. 교육은 5월부터 12월까지 전북대 전주캠퍼스에서 주말에 실시된다.

/장은성 기자



"에코시티 전라중 이전, 고교 신설 지지"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비상대책위원회, 입주자 대표, 상가연합회는 1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서거석 후보의 에코시티 전라중 이전, 고등학교 신설 공약을 지지한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2024년 31학급으로 개교 예정인 에코시티 내 전라중학교는 오는 7월 첫 실을 틀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전교조 역대지부장들 "서거석 예비후보 교사 폄훼 등 망언 규탄... 사과해야"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의 망언과 오만함을 규탄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역대지부장들은 11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이 다시 부패와 부패로 더욱 얼룩졌던 과거로 퇴행할 위험에 놓여있는 사실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민주진보 교육감 시기 이전의 전북 교육행정이 어떠한지를 생생히 기억한다"며 "뇌물을 받거나 성적을 조작한 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반면 학생 체벌학습 승인 등 교사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 징계를 남발해 교직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후퇴시켰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북지부 지부장들은 "그 이후 민주진보 교육감을 견인해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인권 신장 사학 민주화,

부패방지와 우수한 청렴도라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왔는데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3월 중순쯤 한 지역의 학부모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이 전북교육을 망쳤다", "전북에 자질 없는 교사들이 너무 많다", "교사나 교장 출신이 교육감을 하면 안 된다. 행정을 모른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이러한 발언들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지적하면서, 서 예비후보가 명확히 해명하고 전북 모든 교사들에

게 사과할 것을 지난 3월 31일에 요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거석 예비후보는 사과는커녕 비꼬는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이들은 "학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비하와 폄훼로 교육 주체들의 사기를 꺾어놓게 되면 그곳에는 억압과 통제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교조 전북지부 역대지부장들은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문제의 망언들과 갈라치기 행태에 대해 사과하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며 "자신의 각종 의혹과 검증 요구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다양한 교육 주체들을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적극적인 토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서거석 "학폭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 것"

### 학교폭력 사전예방·사안처리·사후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가동키로 학생 지원 상담 강화 위한 전문상담교사50% 확대·배치·위센터 재정비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교폭력을 통합·관리해 안전한 학교 만들 것을 약속했다.



서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사전예방, 사안처리, 사후관리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은 신체 폭력과 같은 피해 유형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 예비후보는 사전예방을 위해 온라인 유해 콘텐츠 필터 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학교폭력 유형별 전문가를 양성해 사례별, 체질 중심의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경우, 민원 해결과 지원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직을 확대하고 피·가해 학생 즉

시 분리 등 초기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률지원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피·가해자 회복 조정, 민원해결 등을 위해 권역별로 회복조정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문화, 예술 등 선택형 치유 프로그램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해 부적을 또는 과 스트레스 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해 '학생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 상담 지원 강화를 위한 전문상담교사를 50%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또 위(Wee)센터가 학교폭력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고, 상담 진행 방식에 익명 메타버스, 챗봇 상담시스템 운영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 예비후보는 "학교폭력 통합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아이들이 가고 싶은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학생은 물론 학교,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 천호성, 부당한 교권 침해 발생시 교육청 직접 개입

천호성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한 교권 침해에 대해 학교에 맡기지 않고 교육청이 직접 개입·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학생인권에 대한 강조가 교권 실추를 가져왔다는 식의 학생인권과 교권의 대립적 접근은 경계해야 한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을 함께 공

존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신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권 신장 방안에 대해 그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학교인권교육센터로 확대 개편해 여가에서 인권침해 상담, 피해 회복, 권리구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인권교

육센터는 교육공공체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당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학교에 맡기지 않고 교육청이 직접 개입해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심한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까지도 검토할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장은성 기자